

삼별초의 군수품을 나르던 길목

항파두리성과 가까운 해안가는 삼별초의 군수물자가 이동하던 길목이었다. 한가롭게만 보이는 포구와 마을의 옛 지명에서 삼별초와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상귀길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567-5 ~ 애월읍 상귀리 1107-1(약 1.9km)

하귀로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546-1 ~ 애월읍 하귀2리 2448-1(약 1.5km)

하귀미수포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74 ~ 애월읍 하귀2리 1417-1(약 0.5km)

하귀미수포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676 ~ 애월읍 하귀2리 1653(약 0.4km)

가문동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615-1 ~ 애월읍 하귀2리 2837-1(약 1.1km)

번드르길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680-1 ~ 애월읍 구엄리 2930-1(약 1.2km)

반대동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969-1 ~ 애월읍 수산리 795-9(약 0.7km)

학원동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277-6 ~ 애월읍 하귀2리 2129-2(약 0.5km)

개수전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071 ~ 애월읍 상귀리 1482(약 0.8km)

답동2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286-1 ~ 애월읍 하귀2리 1899-1(약 0.5km)

예소길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570-1 ~ 애월읍 상귀리 1262-1(약 0.7km)

상하귀길 |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34-1 ~ 애월읍 하귀1리 824-4(약 1.1km)

상귀길 / 하귀로 | 상귀리와 하귀리

상귀길과 하귀로는 길이 지나는 각 마을의 명칭을 반영한 이름이다. 애월읍의 동쪽에 위치한 상귀리(上貴里)와 하귀리(下貴里)는 예전에 귀일현(貴日縣)이라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이후 중산간의 윗마을과 해안가의 아랫마을로 나뉘면서 각각 상귀리와 하귀리가 되었다. 이 일대는 고성리에 있던 향파두리성과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었다. 당시에 성 주변으로 여러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의 규모가 커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토성을 쌓는다거나, 성에서 사용할 물자를 나르기 위해 부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거기다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 군사들의 식량과 더불어 훈련할 장소도 제공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상귀리와 하귀리의 마을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삼별초와 관련된 흔적들은 마을에 전해오는 지명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하귀미수동길 / 하귀미수포길 | 미수동



미수포구

하귀로와 이어지는 **하귀미수동길**은 하귀리 해안가에 위치한 미수동(味水洞)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미수동 마을 안에는 일미샘이라는 물이 있다. 옛날 제주목사가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러 가던 중에 이 물을 마시고는 맛이 좋다는 의미로 미수(味水)라고 했다고 한다. 미수동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하귀미수포길은 미수동의 포구까지 이어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미수동 해안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는 바다가 섬 안 쪽으로 들어와 있는 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배들이 드나들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수포구를 비롯해 동귀포구, 가문동포구 등 여러 포구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 중 동귀포구는 예전에 삼별초군이 군수품들을 실어날랐다고 해서 군항포라 불렸었다고 한다. 척박한 환경을 가진 제주에서는 군사들의 식량을 모두 조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삼별초는 남해안 지역에서 쌀을 실어 나르는 배들을 침범해 군량미를 마련했다. 그렇게 뺏은 쌀들은 향파두리성과 가장 가까운 해안인 하귀리의 항구를 통해 성 안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가문동길 | 가문동 원병터

미수동 서쪽에는 해안을 끼고 있는 마을인 가문동이 있다. 조선 영조 때 문충순이란 사람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해서 가문동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가문동길**은 이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가문동에는 원병터라는 지명이 전해오는데 군대가 주둔하면서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터라는 의미이다. 삼별초군이 훈련했던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별초를 물리친 원나라 군대가 주둔했다고도 한다. 군사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넓은 들판을 가지고 있는 가문동은 훈련장으로 최적의 장소였다.

번드르길 / 번대동길 | 번대동

가문동의 남쪽에는 넓은 들판으로 **번드르길**이 이어진다. 이 길은 평야같이 넓은 밭이 있어 번드르하다는 옛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인근에 번대동이라는 마을이 있어 번대동의 넓은 들을 말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번대동길**은 마을의 중심을 지나 수산리까지 이어진다. 번대동에는 이웃마을인 수산리에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게 된 하동마을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했다고 한다. 비록 자신들이 살던 마을은 사라졌지만 고향에서 멀리 떠나지는 못한 사람들은 이 길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왕래를 이어갔을 것이다.

학원동길 / 개수전길 / 답동2길 | 학원동과 답동

하귀리의 또 다른 마을에는 학원동과 답동이 있다. 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학원동길**은 하소로에서 마을 안으로 이어진다. 학원동의 옛 이름은 개물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개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였다. 이 샘물은 물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소나 말이 먹는 것을 막기 위해 덮개를 덮어 식수를 지켰던 것에서 개물이라 불렀다고 한다. 학원동길과 만나는 **개수전길**은 이 샘물의 앞을 지나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이후 마을에서 비학이동산이라는 곳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학원동(鶴園洞)으로 바꿨다고 전한다.

답동은 번대동의 동쪽에 있다.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던 불근질, 빌레태역, 논골 이

렇게 세 마을을 합쳐 답동이라 했다고 한다. 답동이라는 이름에는 논밭이 있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었다. **답동2길**과 같은 마을의 길에서 옛 지명을 만날 수 있다.

예소길 | 소왕물



소왕물

예원로에서 상귀길로 이어지는 **예소길**은 예원동과 소앵동을 연결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상귀리의 마을인 소앵동은 과거 소앵이마을 또는 소왕동으로 불렸다고 한다. 인근에 소왕천이 흐르고 있고, 마을 안에 식수로 이용되었던 소왕물이라는 샘물이 있어 옛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왕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용천수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식수를 얻고 빨래를 했으며, 마을 사람들과 담소도 나누었다. 쉽터처럼 이용되던 소왕물은 집집마다 물이 나오게 되면서 예전같은 역할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 마을은 4·3사건 때 마을이 사라지는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다.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살면서 지금과 같은 마을로 재건되었다. 이후에 마을의 지형이 앵무새가 알을 낳기 위한 둥지의 형상이라고 해서 소앵동(巢鶯洞)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상하귀길 | 파군봉

상귀리와 하귀리를 이어주는 **상하귀길** 인근에는 대부분이 평지인 이 일대에 유일하게 높이 솟아있는 파군봉이 자리하고 있다. 파군봉은 바구니를 엮어놓은 것과 같다고 해서 바구니 오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오름은 주변의 마을을 비롯해 바다까지 한 눈에 조망이 가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삼별초는 이곳에 진을 치고 해안으로 들어오는 적을 감시하는 곳으로 오름을 이용했다. 그래서 파군봉 인근에는 진(陳)밭, 사장밭, 활왓 등 병영과 관련된 지명들이 전해온다. 파군봉(破軍峰)이라는 이름도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이 삼별초를 물리친 곳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또 다른 지명인 붉은질은 당시 치열한 전투 끝에 흘러나온 선혈이 땅에 스며들어 붉은 흙이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